

도내 5개 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김제지평선축제 · 무주반딧불축제 · 순창장류축제 · 완주와일드푸드축제 · 고창모양성제

김제지평선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5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본보 12월 27일자 9면·10면)

2017년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규모 축소(43개→41개)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했으며, 경기와 강원지역을 제외하고, 5개 시도가 감소했음에도 전북도는 5개 규모(대표1, 최우수1, 유망3)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유망축제의 경우 기존축제의 30%를 탈락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진입한 고창모양성제 뿐만 아니라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유망축제로 가능성을 재확인 받았다.

특히 김제지평선축제는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됐고, 무주반딧불축제는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유망축제에는 순창장류축제(우수→유망), 3년 연속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가 2년 연속 선정됐다.

그동안 전북도는 1시군 1대표 축제를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시작한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축제의 진입 규모를 매년 늘려가고 있다.

전국 유일의 '시군 대표축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개선책을 통해 시군 축제별 계획 수립 단계의 사전컨설팅부터 현장평

가와 피드백까지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대표축제 평가시스템인 축제장 방문객 집계방법(유인측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집계지침 마련에 모델화 되는 등 축제평가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매년 개최되는 50여개의 지역축제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1시군 1축제로 14개를 선정해 시군대표축제 컨설팅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도 지정축제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시군의 컨설팅방향 수요조사와 컨설턴트 인원 확대(3→4명), 컨설팅 시기 조정(축제개최 1~2개월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시군에서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방안 모색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에 중점을 뒀고, 운영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로 인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14개 시군대표축제의 평균 지수가 향상됐고, 지역의 브랜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임실N치즈축제는 직접 경제효과 측면에서 전년대비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재용 기자

도-유관기관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

연탄 6000장 기부도

전북도와 도내 주요기관들은 27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연탄 6,000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KBS전주방송총국, 전북교육청, KT전북고객본부, 한국국도정보공사 전북본부 등이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연탄 6,000장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북지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해 도내 독거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일재 부지사는 "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이웃과의 정을 쌓고 사랑을 나눴으며 이웃의 추위를 녹여주어 겨울 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기를 바란다"며,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22개소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정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해 6차산업(융복합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22개소(신청 30개소의 73%) 경영체가 4/4분기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1,132개 6차산업 인증사업자 중 170개소의 인증사업자를 보유하게 됐다.

6차 산업 인증 심사는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 주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6차산업 적합성 및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 지역농업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2개 경영체를 선정했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개최, 우수사례 경진대회,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에 인증 정보를 등록해 6차산업 인증 사업의 제품을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농촌에서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현장 코칭, 자금 지원, 새로운 유통 채널구축 등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도, 하반기 퇴(이)임식 가져

전북도가 27일 3층 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함께하는 하반기 퇴(이)임식'을 개최했다.

정년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송하진 지사는 퇴(이)임자 모두에게 직급과 직위, 재직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훈장,포장 대신에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좌석배치와 수여순서 등을 성명 순으로 배치해 퇴직 공무원들 간의 괴리감을 줄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송하진 지사는 "많은 가족과 동료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명예로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인 퇴임 후의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전북발전과 도민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퇴직 공무원을 대표해 퇴임소감을 발표한 강건순 과장은 "자랑스런 전북의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전북발전을 응원하고, 내 안의 나를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직원 간 소통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퇴(이)임식 행사에 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행사 구성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가 27일 3층 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함께하는 하반기 퇴(이)임식'을 개최했다.

전북 명품주 8점 '우리 술 품평회' 입상

대상 '황진이주' · '선운' · '주몽복분자주' ... 최우수상 '우리술 오늘' 등

시간과 정성으로 빛은 전북 명품주가 2016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를 휩쓸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우리술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전북 명품주 8점이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전통주에 대해 주종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씩 총 32점을 선정하는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했으며, 전국 217점이 출품돼 32개 제품을 선발, 그

중 도내 8개 제품이 입상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 입상한 것으로 이번 품평회를 통해 전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명실공히 인정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시삼공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어서 도내 우수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참가동기를 부여하고 품질개선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제품은 약청주 부문의 '황진이주'(농업회사법인 참분), 과실주 부문 '선운'(고창서해안복분자주), 기타주류 부문 '주몽복분자주'(농업회사법인 참분) 등 총 3

점이다.

또한 '우리술 오늘'(전주 기암주)이 생막걸리 부문 최우수상에, 살균막걸리 부문 '선운사의 아침 복분자막걸리'(국순당 고창명주), 증류식 소주 부문 '고구마 아라'(배상명주)가 고창 1B, 리큐르 부문 '천마령'(덕유양조)이 우수상을, 기타주류 부문 '편지 쌀바나나'가 장려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에 대한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6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공노 조합원 300명, AI 조기근절 지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AI 조기근절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28일 300명의 조합원을 강제 용지 예방적 살처분 현장의 매몰작업 등에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강제 용지의 살처분

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기타 시군의 차단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조기종식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6일과 27일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및 간부공무원 287명을 살처분 현장에 지원했으며, 28일까지 매몰작업(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22개소 적발 조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해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46개소를 점검해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 22개소를 적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수질·대기 등 환경질도내타입 미실시 △법정보호조 관리대책 미흡 등이다.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인 △정읍-신대간간 도로건설 △전주O0부대 이전부지 도

시개발 사업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적발된 △익산 용포관광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협의내용 미이행률은 15%로 지난해(11%) 보다 높았고 미이행 사업장(22개소) 중 공공기관이 15개소(70%)를 차지해 민간사업장 보다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재 기자

구독문의 288-9700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명단

▲부안군 백산면

- △원천1마을 100,000
- △신흥마을 160,000
- △거룡2마을 60,000
- △산전마을 160,000
- △대죽마을 370,000
- △봉동마을 70,000
- ***계 920,000원

▲부안군 주산면

- △덕림마을 235,000
- ***계 235,000원

부안군 공고 제 2016-1112호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부안군 경관계획 수립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최목적
 - 부안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14:00 ~ 16:00
 - 장소 : 부안읍사무소 회의실(2층)
3. 참석대상
 - 관계전문가 및 관심 있는 지역주민
4. 경관계획 수립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부안군 전역(493.35km²)
 - 시간적 범위 : 기년년도 2016년, 목표년도 2030년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 경관계획의 기본구상(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 경관가이드라인 및 경관관리 실행계획
 - 해안경관에 대한 보존·관리 및 경관개선 방향 수립·제시
 - 2023년 세계 경관대회 대비 경관 형성 방향 제시
 - 가로경관, 수변경관, 야간경관, 공공시설·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 편람 등
5. 의견 제출
 - 경관계획안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 당일 입구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폐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출기한 : 2017. 1. 13 ~ 2017. 1. 20(18:00한)
 - 2) 의견서식 : 부안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불임서식 참조
 - 3) 제출방법 :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방문 또는 FAX(063-580-4140), E-mail(gacy25@korea.kr)로 서식 첨부하여 전송
6. 문의처
 -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주택관리팀(063-580-48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부안 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